

# 치열한 논리로 인간사 꿰뚫은 추리소설

스코트 터러우의 「무죄추정」

예나 지금이나 '고3은' '苦3' 입에 틀림없을 듯하다. 공부를 잘 하건 못 하건. 특히 나처럼 긴장감을 이겨내는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엔 더더욱.

나의 '고3' 여름방학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만남으로 채워져 있었다. 어린이들의 놀이 속에 등장하는 피도신사 루팡에서부터 철두철미 탐정스러운(?) 셜록 홈즈. 그리고 귀족담정 피터경, 사고기계, 엘큐를 포와로... 따뜻한 할머니 '마플여사' 까지.

그러저러한 기간을 거쳐오다가 문득 이 책을 뽑아들게 된 건 순전히 '번역자'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 시대의 사랑」이란 시집을 낸 적 있는 시인 최승자가 이 책을 번역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난 이 책을 골랐고 읽었고 성공했다(?).

이 책의 저자 역시도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하버드 법대를 거쳐 검사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범죄현장에 누구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수많은 특이한 범죄사건을 조사했을 법한 그의 경력은 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떤 막연한 '감' 보다는 논리성, 그리고 인간사를 꿰뚫고 있는 비열한 속성이나 동기들에 대한 차분한 이해를 작가는 보여준다.

때론 지겹게 느껴지는 정황묘사, 심리묘사 역시도 이 책의 특징이다. 더불어 독자가 감내해야 할 '벽'일 수도 있겠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독자들이 끊임없이 달리고자 할 때에도 작가는 느릿느릿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여기를 봐. 그래야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라고. 그리고 작가의 말은 거의 정확하다. 끊임없는 반전이 작품 말미에까지 이어져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종잡을 수 없게 한다.

더불어 주인공에 대해 '인간으로서' 이해하기를 요구한다. 어두웠던 과거와 숨막힐 듯한 현재. 뛰어나지 못한 제반 능력. 초월의 힘을 갖지 못한 정신적인 단순성. 순진함(?)... 이런 것들의 총합체로서 '주인공'을 바라봐주길 바란다. 단순히 '누명 쓴 자'가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을 소유한 인물로서의 주인공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필립 머로우의 우수」란 작품과도 닮아 있다.

추리소설을 읽는 것이 우선은 '재미'있었으면 한다. 억지로 꿰어맞춘 트릭들은 아무리 '재미'있게 보여해도 언제나 '배신감(?)'만을 남겨줄 뿐이다. 또한 인간적이지 않은 철두철미한 악인(선인도 마찬가지로)은 추리

소설에 대한 애정을 식게 만들 뿐이다. 이 소설은 그런 점에서 비교적 나쁘진 않다. 완전히 좋은 작품이라고 하기엔 난삽한(분명 원작타이었으리라 믿는) 문장들이 너무 많았고, 더불어 작품을 읽기 위한 무진장의(?) 노력을 요구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인내력이 있으며, 추리소설의 새로운 분야를 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적합할수 있겠으나, 빨리 끝을 보고 싶은 조급증의 독자에게 분명 '괴로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내리는 것이.

## 유한서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6-390

## 「블랙 홀과 우주」

이 책은 모스크바 우주연구소의 천체물리학자 이고르 노비코프(Igor Novikov)가 일반 과학 독자를 위하여 '블랙 홀'과 '빅 뱅 우주론'을 설명한 것이다. 블랙 홀과 우주론에 대한 소련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은 스티븐 호킹의 저서에서도 단편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영·미 계통의 서적들만 주로 소개되어온 탓에 소련의 과학 수준과 문화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우리에게 다소 낮은 소련 과학자가 펴낸 이 「블랙 홀과 우주」(동아출판사)는 소련의 천체물리학 수준뿐만 아니라 대중과학출판의 경향까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블랙 홀의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 프랑스의 라플라스나 아니면 영국의 존 미첼이나 하는 역사적 논쟁을 끌어내면서 블랙 홀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필자 자신이 직접 상대성 이론과 블랙 홀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겪는 에피소드와 발견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상천외한 블랙 홀의 성질들을 재미있게 서술해 구미에서 나온 책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은 소련 과학자들의 업적과 함께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이다.

제1부의 마지막 장에서는 스티븐 호킹의 연구로 유명한 양자론적 블랙 홀(일명 미니 블랙)과 블랙 홀의 증발을 다루고 있다.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으며,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블랙 홀이 결국은 증발한다는 사실은 매우 기이해보이지만, 엄연한 이론적 사실이다.

제2부에서는 빅 뱅 우주론을 다루고 있는데, 제1부 블랙 홀보다 훨씬 돋보이는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 하면, 빅 뱅을 다루는 물리학 자체가 정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된 책이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빅 뱅(Big Bang)은 약 150억년 전에 우리 우주의 탄생을 가져온 특이점에서의 대폭발을 이야기한다.

빅 뱅 이론이 등장한 배경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책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느냐 정지하고 있느냐 하는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을 비롯한 과학자들의 논쟁과,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관측적으로 확인되는 과정, 그리고 빅 뱅 이론의 증거가 되는 우주배경복사의 발견 과정 등을 과학사적으로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주는 장차 어떻게 진화해갈 것인가 하는 우주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 우주가 탄생한 직후인 10<sup>-43</sup>초의 극소의 시간대에서부터 10<sup>100</sup>년 후의 무한히 먼 장래까지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 서술한 장대한 우주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 이충호

광명시 광명동 67-3, 201호

## 「천국의 연인들」

프랑스 영화를 감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뛰어난 영상미와 압축된 표현, 그리고 서정성이다. 물론 이 때문에 곧잘 즐거리를 놓치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프랑스 영화를 보는 하나의 재미이기도 하다. 알 듯 모를 듯 느껴지는 여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프랑스의 해변 도시 니스에서 영화감독 에도아르도와 가수 글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한때의 사랑을 주제로 다룬 「천국의 연인들」은 그런 점에서 남다른 묘사가 듬뿍 담겨 있다.

"늦여름의 부드러운 날씨에 보랏빛 구름이 완전한 고요가 감돌고 있는 맑은 하늘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밤은 낮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번갯불이 침침한 줄무늬의 바다에서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다."

언뜻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듯하지만 거듭 되씹을수록 비바람 부는 니스의 해변과 햇살 가득한 남불의 하늘이 눈앞에 떠오른다. 아울러 작가의 재치있는 표현력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각적 언어들로 엮여간 「천국의

연인들」은 사랑에 대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인지를 색다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주인공 에도아르도는 그의 연인 글로리아를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해줄테니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처음 글로리아를 사랑하던 느낌 그대로, 그녀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까지 모두 포용한 채 그녀를 사랑한다. 에도아르도가 글로리아에게서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조차 여전히 글로리아는 그의 연인이었다. 다만 더 이상 그녀의 곁에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헤어짐이 그다지 슬프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구의 개방적인 사고 방식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만큼 나 또한 구속당하기를 거부하는. 이에 대해서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절하게 설명해줄 것 같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우리는 흔히 서로 간섭하고 자신의 틀에 상대를 꿰어맞추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그런 면에서 에도아르도의 사랑은 신선한 충격이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문체이기도 하다. 물론 이 책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사 이래 모든 예술장르에서 다루온 영원한 테마인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 박종숙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은마APT 15-406 · 회사원

## 송영의 「흰산」

조만간에 우리는 여름휴가를 금강산에서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국소설에서 신선 여행을 다이아몬드산으로 가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아닌 사람들은 이토록 쉽게 이 산을 다녀간다는 사실에 놀라움만을 가질 뿐, 더이상 생각하기조차 계속 할 수 없었던 곳을 이제 우리도 마치 설악산을 오르듯 할 수

있을 시대가 오고 있다.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그 누가 붉은 광장의 나라나 만리장성으로 막혀 있는 나라로 여행을 가겠다고 꿈이나 꾸었겠는가? 이런 때에 그 구석기시대 같기만한 시간대를 다룬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겨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책이 하나 눈에 띈다.

유년시절을 전쟁으로 보낸 작가에 의해 쓰여진 「환산」(웅진문화)은 작가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구성된 장편소설이다.

“전쟁의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자, 이것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짐했던 말이었다.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시 친진한 유년시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다시 행복해지지 않았고 친진한 유년시절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헛된 바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몇십년이 지난 지금 문학의 이름으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렸다.”

이상과 같은 작가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환산」은 국민학교에 다니던 ‘나’가 이상한 전쟁-같은 편이 싸우는 것 같은-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일들로 엮여져 있다. 어느날 멀리서 들리는 쿵쿵소리와 함께 녹색 병정들이 나타나고, 동네에서 동네로 피난을 다니기도 하고, 낮선 흑인병사들을 보기도 하고, 사람이 죽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가슴떨기도 한다. 그러면서 주인공 ‘나’는 유년시절을 전쟁에 대한 기억으로 채워나간다.

분명히 심각한 전쟁상황인데, 읽는 이에게는 전쟁놀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워낙 이상한 전쟁이어서 그런가? 적이 분명치 않으니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해야 할 대상 또한 분명치를 못하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주는 숙연함과 비극성은 엄청나기만 하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것 같다. 그 엄청난 비극적 기억이 읽는 이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니 말이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의 그 실제 의미를 알고 싶은 사람 혹은 오늘날의 화해무드 속에서 예전의 냉전논리를 되새김질하고픈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 김미경

안양시 안양6동 587-42

### 아일린 곳지의 「장미정원」

타고난 숙명에 의해 서로 뒤바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가 흥미롭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이다. 게다가 두 주인공의 삶이 얼키고 설켜 인연의 실타래를 좇아 서로 뒤엉켜들기라도 하면 십중팔구 그 흥미로움은 더욱 고조되는 법이다. 그래서인가? 사랑이야기를 제외해놓고 보면 이 주제만큼 소설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다. 「장미정원」(도서출판 늘푸른)은 이런 주제를 뼈대로 해서 구성된 소설로 그 이야기 전개가 자못 흥미롭고 또한 재미도 안겨준다.

가난한 거리에서 자라난 실비는 재산가이면서 성품이 좋은 노신사 제럴드와 결혼함으로써, 결혼과 함께 신분상승을 이룬다. 그러나 실비는 니코스와의 사랑을 꽃피우게 되고, 그 결과 니코스의 아기 로즈를 낳게 된다.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을 계기로 실비는 로즈를 낳은 아기인 레이철과 바꾸게 되고, 이후 세월은 흘러간다. 로즈와 레이철은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들로 만나게 되고, 이들의 만남은 운명적인 고리에 의해 계속된다.

「장미정원」은 실비, 로즈, 레이철 세 여인의 삶과 사랑을 밀도 있게 구성한, 만화만큼이나 재미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여성취향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낭만적인 사랑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들어 많이 읽히고 있는 감성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소설들 중의 하나이다. 다분히 로맨틱한 이야기가 풍요로움 속에 깃들어 있고, 등장하는 인간 군상들은 대개가 긍정적인 인간형들이다. 자신이 정한 자기 삶의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다가서서 마침내는 이루어내고야마는 의지 있는 인간들이다. 적어도 주인공들은 모두 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읽을 때는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손에서 놓지를 못하지만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면 아무런 감흥도 남기지를 못하며 더군다나 작가가 전하고 싶어하리라고 기대되는 메시지도 없다. 굳이 찾자면, 어려울 때일수록 잘 참고 견디어내면 어쩌다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정도일 것 같다. 이 책이 주는 또하나의 공허함은 자본주의의 꿈을 현실인양 착각케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진부하고도 식상한 이야기를 단숨에 읽히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소설’로서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 노진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327-53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한 줄이 당시의 유행하는 바로 그 책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 한솔기획

■ 출판제작대행 출판기획, 자비출판, 번역·교정·편집·인쇄 ■ 디자인 표지디자인, 출판광고디자인 ■ 원고 은행 원고가 없어서 출판을 못 하시는 출판사, 원고는 있으나 성격에 맞는 출판사를 찾지 못한 작가분, 한솔에서 도와드립니다. ■ 전자조판 시스템 전산사식, 광고사식, PC데이터 호환-인화 및 필름출력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 Tel 735-4997/722-3866 Fax 722-3866